

줄줄이 풀려나는 내란세력 모의·증거인멸 우려 커진다

김용현·이진우·여인형·문상호 등
재판 지연으로 구속기간 만료 앞뒤
특검 서둘러 재구속·기소 이뤄져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던 내란 주도 세력들이 무더기로 풀려나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군 수뇌부 인사들이 재판부의 재판 지연으로 법적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풀려나면 이들이 다시 모여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같은 날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 1월 22~25일 구속 집행정지됐던 만큼 다음달 3일 풀려난다.

지난 1월 3일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다음달 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같은 달 6일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다음 달 5일 석방된다.

이어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1월 8일 구속기소·7월 7일 구속 기간 만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 10일 기소·7월 9일 만료), 김용균 전 대령(1월 15일 기소·7월 14일 만료) 순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검찰은 ‘조건부 보석’으로 증거인멸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어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어려우나, 차선책으로 증거인멸 금지, 출국 금지, 피의자 등과 연락 금지 등 조건을 걸어 보석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마저도 피고인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하거나 보석 보증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식으로 나서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

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보석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대로 보석이 집행되지 않은 채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로 풀려난 윤석열이 경찰 소환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재판도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재판 속도를 내지 못한 재판부·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내란 세력들의 모의·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단 내란 사건을 다루는 만큼, 법적 구속 기한인 6개월 내에 모든 진상을 밝혀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구속 기간 만료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일”이라며 “검찰이 내란 외에도 군사 반란죄 등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 구속 사유를 만들어 뒀어야 했는데 검찰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홍현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지부장도 “애초 구속 기한을 6개월로 정해둔 것은 신속하게, 그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라는 취지인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하물며 헌법재판소도 중요 사건은 매주 심리를 하는 등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는데, 내란 재판 속도를 그만큼 내지 못한 것은 탄핵 재판과 대선 영향에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며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비상행동 대변인은 “시민의 힘으로 불법 내란을 저지했는데 재판 지연으로 구속에서 풀려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다시 내란이 일어나도 좋다는 사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시켜줬던 지귀연 판사가 계속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필요하다면 대법원에서 직권으로라도 지 판사를 재판부에서 배제 조치하고 특검을 빨리 구성해 기소와 재구속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언제오나...하염없는 기다림 광주지역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구 양동시장역(북) 버스정류장에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노인·장애인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광주 버스 파업

디지털 취약 도착 정보 파악 어려움
장애인용 저상버스 운행률 더 떨어져
배차시간 길어져 무료환승도 어려워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2주 가까이 지속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 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노인들은 휴대전화 등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며 하염없이 서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장애인들은 그나마 운행 횟수가 적던 장애인용 저상버스 운행률이 더욱 떨어져 버스를 한 번 타기조차 어려워하고 있다.

더욱이 광주 지역 기온이 연일 30도 안팎으로 오르고, 최근 내린 비로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체력적으로 취약한 노인 등에게 더욱 가혹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에서는 전

세버스 6대를 포함한 총 792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됐다. 운행률은 79.2%다.

이날 오전 광주시 남광주역 정류장에는 노인들을 비롯한 시민 20여명이 모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광주시는 이 정류장을 지나는 순환01번, 봉선37번 노선에 전세버스를 도입했으나, 정류장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지 않았던 탓에 도입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현숙(여·78)씨는 “대체 버스로 전세버스가 투입된 줄 몰랐다. 시내버스가 와야 알아보지, 다른 버스는 눈에도 안 보이지 않겠느냐”며 “원래 타던 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오곤 했는데 오늘도 28분을 기다리라고 하니 대책없이 기다리고만 있다”고 말했다.

박상태(77)씨는 “스마트폰 버스 앱도 없고 불쭙 몰라서 그냥 나오는데, 이 더운 날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자니 숨이 턱 막힌다”며 “전세버스는 정류장에 몇 분 남았다고 운행 정보

도 뜨지 않으니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저상버스 운행률도 떨어져 장애인들의 이동도 더 불편해졌다.

광주시는 평소 1000대 중 476대를 저상버스로 운행하지만, 파업 이후 16일 기준으로 365대만을 운행했다. 운행 대수만 23.3% 감소한 것이다.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평소에도 일반 버스 3대가 지나야 저상버스 1대를 만날 수 있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게 보통이었다”며 “파업 이후 광주시의 소극적인 대책으로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이동권을 더욱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 파업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사측이 이날로 예정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테이블, 즉 2차 사후조정을 거부하면서다. 현재 사측은 임금 2.5% 인상안을, 노조 측은 임금 8.2% 인상안을 협상 재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여수산단 LG화학 사내하청노동자 300여명 해고 예고 통지

여수국가산업단지 LG화학 사내하청노동자 300여명이 최근 해고 통지됐다. 이들은 LG화학 측에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 전남지부 LG화학사내하청지회는 18일 오전 11시 여수시 화치동 LG화학 여수공장 화치단지 앞에서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지회에 따르면 여수산단 LG화학 사내하청노동자 300여명은 지난날 30일자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LG화학은 지난날 29일 기존 사내하청업체 5개 업체를 4개 업체로 통폐합하고 도급계약 최저입찰

제를 도입해 새로 하청업체를 뽑았다.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보장받지 못한 300여명이 해고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 지회 설명이다.

지회는 기존 하청업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30일이 지나도록 신규 하청 업체가 고용 승계를 해 주지 않으면 300여명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처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17일 현재 4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고용 승계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는 또 기존 노조가 사측과 단체 협약을 맺고 보장받은 임금 상승, 복지 혜택 등을 승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시, 출퇴근시간 전세버스 42대 긴급 투입

광주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광주시가 출·퇴근시간 전세버스 42대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조치를 추가로 내놨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18일부터 출퇴근시간(오전 7~9시, 오후 5시30분~7시30분) 혼잡도가 높은 14개 노선에 전세버스 42대를 긴급 투입한다. 추가된 전세버스의 이용료는 무료다.

시민 교통 불편 해소조치로 배차간격이 길고 혼잡도가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무료 비상수송차량을 추가로 배치한 것이다. 투입 노선은 '순환01', '수완03', '매월06', '진월17', '송정19', '매월26', '일곡28', '침단30', '송암31', '봉선37', '일곡38', '문흥39', '금호46', '송암47' 등 14개 노선이다.

광주시는 추가 전세버스 투입으로 출근시간 배

차간격이 기존 평균 43분에서 21분으로, 퇴근시간 배차간격은 기존 평균 48분에서 25분으로 절반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세버스 도입으로 시내버스 대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세버스에는공무원을 동승시키기로 했다.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이 미비한 점도 고려한 조치다. 광주시는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최대 100대 이상의 대체차량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